

〈樂譜의 整理〉

辛 容 運 (慶北大)

- | | |
|-----------------|------------|
| I. 緒 言 | IV. 樂譜의 目錄 |
| II. 樂譜의 定義 및 種類 | V. 結 言 |
| III. 樂譜의 分類 | |

I. 緒 言

악보는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대에는 감상음악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일반 음악애호가들도 악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도서관의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악보의 정리에 대한 제반 문제를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樂譜의 定義 및 種類

“악보(Musical note)는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호·문자·숫자 등으로 記譜法에 따라서 적은 것”으로서 地域이나 國家에 따라 그 종류나 방법의 차이는 있어도 古代로 부터 존재해 왔으며, 현재의 五線譜가 확립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악보의 종류는 사용목적이나, 연주수단, 기보법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오늘날 서양음악에서 사용되는 악보에는 독창(독주)용, 중창(중주)용, 합창(합주)용, 관현악 등의 종류가 있고, 또 그 聲部 혹은 樂器 전부를 한 묶음으로 표시한 스킨(總譜)과 각 聲部 혹은 각 樂器別로 표시한 파트보(Parts)로 구별된다.

III. 樂譜의 分類

分類에 있어서 악보의 취급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악보를 음악문헌과 분류표 상에서 명확하게 구별하여 전개시키지 않고 각각의 主題와 함께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KDC, DDC, NDC를 들 수 있다.

둘째, 음악을 악보와 음악문헌으로 분리해서 각각을 독자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으로서 LC와 McColvin 분류법이 있다.

樂譜는 曲種의 分類 뿐만 아니라 同一曲에 있어서도 연주형태에 따라 악보의 성격이 변하는 것과 같이 악보의 체제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될 要素가 많기 때문에 음악문헌과는 달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IV. 樂譜의 目錄

(1) 標 目

악보의 대부분은 作曲者를 표목으로 하고, 통일표제 (uniform title)를 선택해서 표목 다음 行에 각 괄호로 記入한다.

음악작품의 통일표제에 관한 記述形式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非樂曲形式의 作品에 있어서는 作曲者가 原作에서 사용한 言語로 통일표제를 記入하고, 악곡형식의 작품에 대한 통일표제는 英語로 記述하되 그 순서는 악곡형식, 연주수단, 식별요소의 순으로 記入하는 경우

둘째, 自國의 입장을 고려하여 악곡형식이든 비악곡형식이든 自國語로 記述하되 악곡형식으로 된 통일표제의 記述順序는 첫째와 동일하게 記述하는 경우.

셋째, 둘째의 경우와 같이 自國語로 記入하되, 自國의 曲名呼稱에 대한 관용도를 고려하여 악곡형식으로 된 통일표제의 경우는 연주수단을 앞에 記入하는 경우이다.

악보의 통일표제는 목록작성자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음악작품의 이용자 계층이 전문가로부터 일반 음악 애호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악곡형식이건, 비악곡형식이건 國文으로 記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記述

- ① 표제
- ② 판표시
- ③ 물리적 기술사항
- ④ 주기사항

V. 結 言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악보는 同一曲에 있어서도 연주형태에 따라 악보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음악문헌과 구별하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보의 통일표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악곡형식이건, 비악곡형식이건 國文으로 記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